

# 저출산 해결, 기본이 우선이다



오지현의  
여성당당

우리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1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금, 아동수당, 분유 값, 기저귀 값 지원까지 2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효과성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9월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2만9400명) 기준대비 8.2%인 2400명이 감소하여 32개월 연속 최저치로 기록되었다.

결혼과 출산 적령기인 30~34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저출산 현상을 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30대 초반 연령대가 집값 및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총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있다.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의 결혼 비율을 낮추고 저출산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저출산을 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집값 안정을 위해 총 세 차례 부동산 대책(8·27, 9·13, 9·21)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상승하는 세금을 걱정하고, 집이 없는 신혼부부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는 디딤돌 대출, 보증자리론 등 대출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합산소득 제한으로 실제 맞벌이 신혼부부는 여전히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 초 주거형태, 주거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희망 자녀의 수 또는 실제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한다고 한다.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공무원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정년보장, 후한 공무원 연금 지급, 웬만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자유롭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해 일반 국민 1000명이 낳은 신생아 14.5명에 비해 약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인 32.7명(중앙부처 공무원), 30.7명(지자체 공무원)을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여성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은 출

산 후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조직을 떠나게 된다. 고달픈 독박육아 후이들을 기다리는 곳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뿐이다.

서울은 아직도 주택보급율이 96.3%에 불과하다. 정부는 강남 잡는데만 몰두할 게 아니라 용적률을 비롯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내 직주근접(職住近接)이 가능한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서울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확대도 지난 5년간 전체물량의 11%에 불과한 만큼 공급확대와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사업도 활성화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 54조원으로 신규인력이 3천개 늘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매년 30만개씩 만들어지던 일자리가 오히려 29만7천개 날아간 것이니 자갈논에 물대기도 이런 경우는 없다.

수도권 GTX3개노선 착공시기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도심에서 직장까지 30분 안팎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GTX의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 출산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접근이 정책의 기본일 때 가능할 것이다.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교수(학과장)



**NH농협은행, 농업인 등 자녀 초청 '매직 테니스 레슨 교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전북도청 테니스장에서 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매직테니스 레슨 교실'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면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 농촌지역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50여 명과 NH농협은행 스포츠단 테니스 선수들이 함께했다. 특히 2018 WTA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개인복식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테니스의 저력을 보여준 최지희 선수도 일일 교사로 나서 적극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NH농협은행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 태풍 피해 현장 방문** NH농협손해보험은 오병관 대표가 지난 8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오 대표는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은 후 현장에 함께한 손해 평가 직원 및 지급 담당 직원들에게 신속한 사고조사를 당부했다.

/NH농협손보

## 삼성전자, 태국서 자연 생태계 재건 봉사활동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동물 주거환경 개선 등 진행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삼성전자 태국법인 임직원들이 태국 칸차나부리 지역에 위치한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찾아 자연 생태계 재건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태국 칸차나부리 지역에 위치한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찾아 동물 주거환경 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 자연 생태계 재건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1965년 설립된 살락프라 보호구역은 태국 최초의 야생 동물 보호지역이다. 약 860km<sup>2</sup>(약 30만 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150여 마리의 야생 코끼리를 비롯한 수백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이 살고 있다.

삼성전자 태국법인은 지난 3년간 태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태국 법인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해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선정하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60여명의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건기의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한 소형 댐 건설을 지원하고, 야생 동물들이 소금을 보충할 수 있는 인공 소금 구조물

을 설치했다. 살락프라 보호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텐트와 신발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살락프라야생동물보호구역의 삼림보호 총괄자 토스폴 위치나산은 "자연과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도움을 받게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삼성전자의 환경보호 활동이 보다 널리 확대돼 태국의 환경보호 인식에 긍정적

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푸나라 핀카논드 직원은 "삼성전자 직원으로 태국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KT, 중기와 에너지 통합 전시관 운영

2018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9개 주요 회원사와 협업 성과 소개



KT 전시부스 /KT

KT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대표 에너지 전문 전시회 2018코리아 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 참가해 KT 에너지 얼라이언스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KT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2018년 2월 생산-소비-거래 등 에너지 사업의 전분야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사업자 연합체다. 에너지 장비 제조사 및 솔루션 기업 20여 개사로 출범했는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 등 50여 개의 파트너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민간 에

너지 사업자 연합이 됐다. KT는 이번 전시에서 기가 에너지 서비스와 함께 KT 에너지 얼라이언스 소속 9개 주요 회원사(파트너사)와의 협업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 SPC, 태풍 피해 경북 영덕에 긴급 구호품

파리바게뜨 빵 2000개  
삼립 생수 2000개 등 전달



물고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SPC그룹은 제 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덕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빵 2000개와 SPC 삼립 생수 2000개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으며, 구호물품은 수해로 대피소에 머

자는 "하루빨리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인사

-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고객경영지원실장 배효진 △북북자산신탁수TF 실장 지창우 △비서실장 정동호 ◇2급 승진 △금융정보부 팀장 진주태 △혁신경영실 팀장 진호정 △국제협력실 팀장 윤성욱
-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재정관리관 이승철
- ◆과산관 ◇5급 승진 △행정과 연기웅 △문화관광과 민혜정 △안전건설과 김진성 △안전건설과 신상돈 △축수산과 손기철

### 부음

- ▲박영덕 씨 별세, 김철수(번호사)씨 장인상 = 8일 오후, 군포지생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31-389-3774
- ▲변장순 씨 별세, 노희호(자영업)·인호·홍호·노호 씨 모친상, 노경백(스포츠월드 광고국 부장)씨 조모상 = 9일 오전 3시 30분, 부평세림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1일 오전. 032-523-8844
- ▲노해순 씨 별세, 강학희(한국콜마 기술연구원 사장)씨 모친상 = 8일 오후 10시 5분, 서울 안암동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02-923-4442
- ▲이달진 씨 별세, 택경(항공대 교수)·택휘(공상은행 부대표)·택수(야촌주택 부사장)씨 부친상 =

- 7일 서울성모병원 1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10-7116-0597
- ▲김찬호 씨 별세, 한경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현 행정공제회 이사장)장인상 = 8일 오후 6시 30분, 사천시 송포동 삼천포시민장례식장 V IP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55-834-1051~2
- ▲서상원씨 별세, 안치원(부천시 중3동장)씨 모친상=9일 오전 5시, 경상북도 영주시 현대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7시. 054-634-4400, 010-8278-2906
- ▲손영주씨 별세, 손진(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 차장)씨 부친상 = 8일 오전,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1일. 053-620-4647

## 필리핀 휴양지 사진 올리고 여행권 받자

이마트-필리핀 공동 프로모션

이마트는 오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마트오프라인·온라인 방문 고객이 '필리핀 휴양지 사진'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필리핀 휴양지 여행권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필리핀 휴양지 사진'은 이마트 오프라

인 매장에서는 필리핀 과일코너 앞에서, 온라인몰에서는 필리핀 과일 상품 세부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고객은 해당 사진을 지정 해시태그(#이마트필리핀관광부, #필리핀여행, #이마트, #가고싶은지역명-마닐라, 세부, 보홀, 보라카이)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신원진 기자 tree6834@